

혼전동거

최근 동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와 '스크린'은 경쾌한 어조로 동거를 그려냈으며 작년 여름에는 쿨의 '절퍼맘보'가 '살아봅시다. 과연 우리 잘 맞는지 어쩐지를 한번 꺾어보면 어떨지'라고 유희하기도 했다. 매년 이혼율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요즘, 동거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동거를 하기란 아직까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결혼제도의 대안으로 인식

반면 프랑스에는 동거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한 젊은이들이 연인과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 자유로운 동거 문화가 자리잡은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동거는 미망인이나 홀아비, 이혼한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거는 결혼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후 결혼의 새로운 대안으로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동거 문화는 우리나라 대중매체에 유행 같이 다뤄지는 '가벼운 동

거'와는 거리가 있다.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동거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20대의 불안감이 아니라, 자신과 더 잘 맞는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같은 동거 생활은 20대에 시작되어 몇 년의 시험기간을 거친 뒤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그 중에는 평생을 동거 부부로서 살면서 아기를 낳고 노부부로 늙어가는 커플도 적지 않다. 구속력이 강한 법률혼의 무게에 지친 프랑스 커플들은 거추장스러운 결혼 대신 간편한 동거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

물론 과정에 이르는 커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법률혼은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동거는 법적 구속과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불화가 생겼을 경우 각자 집만 쫓겨 나오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한 관계라는 근본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젊은이들은 여전히 결혼 전에 동거라는 통과의례를 거칠 것 같고 더 나아가 결혼 대신 평생을 동거 부부로 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동거문화가 우리나라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된 데에는 몇 가

프랑스의 동거문화

거추장스런 결혼은 NO, 편한 동거는 YES!

국내 TV 프로그램에서는 '혼전동거' 토크 토론의 주제로 삼을 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선진국, 특히 프랑스에서는 결혼제도의 한 대안으로 동거가 자리 잡고 있다. 법적 보호가 힘든 국내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결혼커플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심성은
파리 10대학-남테르 정치학
박사논문 과정

지 이유가 있다. 바로 국가의 경제적,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식이 젊은 커플이 동거를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삼중의 보호를 받는 동거 커플

동거를 결심할 때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출산, 양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은 학생 커플이나 수입이 적은 사회 초년생 동거 커플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동거 커플이 뜻하지 않게 아기를 가졌을 때 정부의 지원은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젊은 부부들은 2세 계획을 미루기도 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동거 커플은 아기를 낳고 키울 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 예로 28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나 약 월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은 개인 부담 없이 70퍼센트 정도의 의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데다가 임신 3개월 때부터는 매달 10만 원 정도의 출산보조금을, 출산 후에는 아기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매달 15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또 동거 부부는 우리나라의 사실혼보다 안정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다. 몇 년 전 프랑스는 시민연대협약(PACS)이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모든 형태의 동거 부부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새로운 법의 시행 덕분에 동거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어도 법률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거의 동

등한 권리를 지나게 되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 줄어든 셈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인식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거 커플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프랑스에서는 결혼한 커플이나 동거 부부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별 다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동거 부부에게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냐'고 권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다. 결혼과 동거는 순수하게 당사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동거 커플들이 경제적, 법적, 사회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아직 동거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동거에 따른 문제들을 당사자들이 감수해야만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등에서 그려지듯 동거를 시험삼아 해보는 것은 삼중의 보호에 있는 프랑스의 동거 문화와 달리 아직까지는 '위험한 모험' 이 아닐 수 없다.

구속력이 강한 법률혼의 무게에 지친 프랑스 커플들은 거주장스러운 결혼 대신 간편한 동거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 특히 몇 년 전 시민연대협약(PACS)이라는 법을 통과시켜 동거 부부들에게 법률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거의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결혼보다 편한 동거를 찾고 있다.

